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주에 [가칭]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들어선다! 원자력연구원-경북도-경주시,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설립 업무협약 체결 경제적 파급효과 1조 334억원... 직접고용 1,000여명, 취업유발 7,341여명 기본 인프라 및 선도사업, 사이언스빌리지 사업 등에 7,210억원 투입	원자력정책과	 사진별첨
② 경북도, 감염병 제로 도전~... 감염병관리지원단 개소 16일(화) 도청 홍익관에 문열어... 예방의학전문의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 감염병관리 전문가,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보건정책과	 사진별첨
③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림 경북~... 경북도, 청림사회 민관협약회 도내 20개 기관·단체 참여... 청림사회협약서 체결 청림 4대 실천의제 및 9대 이행과제 선정	감 사 관	 사진별첨
④ 경북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에 선정 청도군 '청년의 꿈 수제 맥주에 청맥향을 입히다' 사업 선정 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 청년들의 창업과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미래전략 기획단	사진별첨
⑤ 농촌 살리는 해법 현장에서 찾다... 영양에서 농촌살리기 정책모럼 가져 두 번째 포럼... 영양군 고추특화 사례로 지역성장 비결 배워	농업정책과	사진별첨
⑥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9일부터 15일까지 '2019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포럼' 열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 60여명 참가	국제통상과	사진별첨
⑦ 경북도, 상반기 화재 1,472건 발생..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 인명피해 35%, 재산피해 125% 증가... 공장에서 대형 재산피해 발생	소방본부	사진별첨
⑧ 경북 인삼재배 농가, 배움의 열정으로 선진지 현장 찾아~ 경북인삼연구회, 현장기술연수 및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대응 교육... 인삼 경쟁력 강화 인삼특작부 강원도 진부시험지 찾아.. 2021년 풍기인삼세계엑스포 성공 개최 기원	풍기인삼 연구소	사진별첨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경북 연구개발특구 추진전략 보고회' 주재 - 이철우 도지사, '경로당 행복도우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대 변 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16(화)】	담당부서	동해안전락산업국 원자력정책과				
		작성 자	과 장	김 승 열			
			팀 장	김성은	주무관	손올락	
		연 락 처	054-880-7657				

경주에 [가칭]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들어선다!

- 원자력연구원-경북도-경주시,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설립 업무협약 체결 -
- 경제적 파급효과 1조 334억원... 직접고용 1,000여명, 취업유발 7,341여명 -
- 기본 인프라 및 선도사업, 사이언스빌리지 사업 등에 7,210억원 투입 -
- 2050년까지 소형원자로(SMR) 시장 400조원 선도 -

경북 경주에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이 들어선다.

경상북도는 16일(화) 경주 양성자과학연구단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주낙영 경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석기 국회의원,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승직 경상북도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준·배진석·박차양 도의원,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시장을 바라보는 민간의 연구개발(R&D) 수요와 원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원을 확보하려는 경북도와 경주시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원자력의 혁신 연구개발은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상업용 소형원자로의 해외 수출에 대비한 미래 유망기술 연구분야로 이를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유치해 원자력 유관기관이 집적된 경주지역에 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연구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해양, 우주, 극지 등에 폭넓게 활용이 가능한 신개념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12개국이 소형원자로(SMR ; Small Modular Reactor) 개발에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소형원자로(SMR)는 대형 상용원전의 전기출력 1/10이하(100MW급)로 뛰어난 안전성과 저렴한 건설비 등으로 특수발전용(해상원전, 극지용), 수송용(선박, 우주), 일반산업용(열공급, 수소생산)에 적용되는 등 미래 원전수출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시장 전망 : 2050년까지 1,000기 건설, 400조원 규모

이번에 유치되는 혁신 원자력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은 경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경주 감포지역의 국제 에너지과학연구단지 내에 입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경주시, 원자력연구원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와 민간 투자 등을 이끌어 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기본 인프라, 선도시설에 6,210억원, 정주시설인 사이언스 빌리지 사업에 1,000억원 등 총 7,21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단계별 발전 전략 마련과 체계적인 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위해 올해 내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이 조기 착공에 달려있는 만큼, 경북도와 경주시는 내달 8월중 연구개발지원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 334억원에 달하고 7,341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본 인프라, 선도시설 투자비 기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해부터 혁신 원자력 연구기관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동화 끈을 바짝 조여 매고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해 이번 결실을 맺었다” 면서

“국가 원자력 정책을 선도할 저력이 우리 경북에 있다. 앞으로 환동해를 혁신 원자력기술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지역구가 경주인 김석기 국회의원도 그동안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꾸준히 국회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국회 예결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향후 혁신 원자력기술 연구원 설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붙임 사진자료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원자력(연)·경주시·경북도 업무협약(MOU) 체결식 계획

■ 행사개요

- 목 적 : 핵심 원자력기술 역량을 유지·발전시키고 미래 新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 설립 추진
- 일시/장소 : '19. 7. 16(화) 16:00 ~ / 원자력(연) 양성자과학연구원 대회의실
※ (부대행사) 양성자가속기 시설 현장 방문(16:40~17:00)
- 참 석 자
 -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장 등
 - (원자력연구원) 원장, 미래전략본부장, 양성자과학연구원장 등
 - (경상북도) 도지사, 도의장, 도 원전특위 위원장 등
 - (경주시) 시장, 시의장, 시 원전특위 위원장 등

■ 세부 일정

시간		내 용	비 고
15:55 ~ 16:00	5'	• 행사장 도착 및 환담	대회의실(가속기동 1층) 사회 : 장재호 부장
16:00 ~ 16:03	3'	• 개회 및 행사안내	
16:03 ~ 16:21	18'	• 인사말씀 - 박원석 원자력연구원장(3') - 주낙영 경주시장(3')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3') - 김석기 국회의원(3') - 장경식 도의장(3') - 윤병길 경주시의장(3')	
16:21 ~ 16:24	03'	• MOU 체결배경 및 사업 소개 - 임채영 원자력연구원 본부장	
16:24 ~ 16:34	10'	• MOU 서명식 및 기념촬영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16:34 ~ 16:40	06'	• 폐 회	
16:40 ~ 17:00	20'	• 양성자가속기 시설 현장방문	
17:00 ~ 17:50	50'	• 만 찬	침성대 회의실(본관 2층)

☞ **하실 일 : 인사말씀, MOU서명, 기념촬영, 시설 투어, 만찬**

참고 1

주요 참석자 명단

no.	사진	성명	소속 및 직책	주요 약력	비고
국회		김석기 (1954)	국회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한국당(경북 경주시) 前) 한국공항공사 사장, 경찰청장 용인대 정치학 명예박사 	
과기부		최원호 (1967, 춘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균관대 기계설계학과 영국 버밍엄대 기계공학 박사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장홍태 (1971, 부산)	원자력연구개발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대 행정학과 영국 요크대 대학원 행정학과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장 	
원자력 연구원		박원석 (1959, 해남)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석사 미국 신시내티대 원자력공학 박사 원자력연구원 소듐냉각고속로개발단장 	
		임채영 (1968, 순천)	미래전략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KAIST 원자핵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 박사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센터장 	
		이준식	양성자과학연구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라큐스 대학교 화학공학 박사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용래	원자력과학단지 경 주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양대 원자력학과, 한남대 핵화공석사 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경주시 원해연경주유치추진단장 	
도의회		장경식 (1958)	도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남대 행정학 석사 경상북도의회 8,9,10,11대 의원(4선) 전국사·도의회회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박승직 (1957)	원전특위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국대 관광경영학과 경주시의회 의장 경주서적 대표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16(화)】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작성 자	과 장	김 영 길		
			팀 장	구자숙	주무관	이은숙
		연 락 처	054-880-3778			

경북도, 감염병 제로 도전~... 감염병관리지원단 개소

- 16일(화) 도청 홍익관에 문열어... 예방의학전문의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 -
- 감염병관리 전문가,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

경상북도는 16일(화) 도청 홍익관에 설치한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문적이고 신속 정확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이동석 동국대학교(경주) 의과대학장, 이관 지원단장,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현판식을 가졌다.

최근 기후변화와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적인 감염병관리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감염병의 폐해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감염병 없는 청정 경북’ 만들기에 주력해 오고 있다

* 운영기관(11개 시도) : 경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동국대학교(경주) 의과대학에 위탁운영하며 이관 교수를 단장으로 예방의학전문의, 의학박사, 간호학, 보건학 전공 전문 인력 8명으로 운영하며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과 원활한 소통채널 유지를 위해 도청 내에 자리 잡았다.

지원단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수립 지원,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역학조사 지원, 시군 대응요원 역량강화, 집단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하고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해 상황실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관 지원단장은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도민건강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15년 발생한 우리나라 사상 초유의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9조 이상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입어 전문적 관리와 체계적인 조직운영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이고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처로 가장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개소식

- ❖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감시·역학조사·상황분석·판단능력 등을 갖추도록 민간 지원체계 구축

□ 행사개요

- 일 시 : '19. 7. 16.(화) 10:30
- 장 소 : 도청 홍익관 355호
- 참 석 : 30명(도지사, 도의원, 시군 공무원 등)
- 내 용 : 현판식, 지원단 추진경과 보고, 다과회 등
- 시간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30~10:35	5'	○ 현판식	도지사
10:35~10:38	3'	○ 기념촬영	도지사
10:38~10:41	3'	○ 지원단 추진경과 보고	보건정책과장
10:41~10:45	4'	○ 인사말씀	도지사
10:45~11:00	15'	○ 다과회	

□ 운영현황

- 운영기간 : '19. 7. 1 ~ 계속
- 위탁기관 : 동국대학교(경주) 산학협력단
- 지원단장 : 이관 교수(동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운영인력 : 8명(단장 1, 비·상근부단장 2, 연구원 5)
- 주요업무 : 감염병 예방관리 기획, 발생감시, 역학조사, 교육 등
-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 150, 도비 150) * '20년 이후 600백만원/년

□ 향후계획

- ('19. 7. 16) 지원단 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
- ('19. 12월중) 경북 감염병관리 컨퍼런스 및 평가환류
- ('19. 2월중) 지원단 출범식 및 기념토론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16(화)】	담당부서	감 사 관				
		작성 자	감사관	이 창 재			
			팀 장	박종하	주무관	홍규찬	
		연 락 처	054-880-4352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경북~... 경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 도내 20개 기관·단체 참여... 청렴사회협약서 체결 -

- 청렴 4대 실천의제 및 9대 이행과제 선정 -

경상북도는 16일(화) 도내 20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렴실천 운동을 전개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민관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경상북도 청렴사회 협약식’을 갖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4개 실천의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참여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실천을 약속했다.

[표] 청렴 실천의제 및 이행과제

실 천 의 제	이 행 과 제
1. 민·관 청렴 협력문화 조성	① 발주청과 시공사의 업무협의를 점심시간 회피 ② 불필요한 사적 만남 근절
2. 갑질 근절로 건강한 직장 만들기	③ 참여를 통한 갑질 요인 개선 ④ 구성원에 대한 갑질 근절교육 ⑤ 발주청의 의무를 시공사에게 부담지우는 행위 근절
3. 부정청탁 근절	⑥ 학연·지연·혈연 배제로 공정한 업무 추진 ⑦ 부정청탁 근절 캠페인
4. 철저한 공익신고자 보호	⑧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⑨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한편 경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29일 민관협의회 운영을 담당하는 경상북도 민관실무협의회를 개최, 협의회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청렴사회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관협의회 민간부문 의장으로 선출된 대구경북기자협회 이주형 회장은 “청렴 대한민국의 선두에 경북도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공부문 의장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청렴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하나된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간의 참여를 당부하면서

“청렴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도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경북도 청렴 실천운동을 전개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경북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계획

- ❖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 공동의 사회문제인 반부패·청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공동 실천약속인 청렴실천협약
 -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 10. 1. 공포)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9. 7. 16.(화) 11:00 ~ 11:50, 도청 창신실(358호)
- 인 원 : 18명 ※ 불참 : 한국도로공사 사장, 경북YMCA협의회 회장
 - 당연직(5) : 도지사, 부교육감,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사장, 한국전력기술 경영관리본부장
 - 위촉직(13) : 경제·건설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학계 대표
- 내 용 : 청렴사회협약 체결, 안건심의 및 민간부문 의장 선출
 - ※ 청렴사회 민관협회의 역할 :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렴실천 운동을 전개 하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

■ 시간 계획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1:00~11: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청렴총괄팀장)
11:05~11:10	5'	△ 참석자소개	사회자(청렴총괄팀장)
11:10~11:13	3'	△ 인사말씀	공공부문 의장(도지사)
11:13~11:15	2'	△ 민간부문 의장 호선	공공부문 의장(도지사)
11:15~11:20	5'	△ 인사말씀	민간부문 의장
11:20~11:40	20'	△ 안건심의 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계획 ② 청렴사회협약(안) ③ 청렴실천의제 및 이행과제 선정(안) ④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세칙(안)	민간부문 의장
11:40~11:45	5'	△ 협약 체결식	모든 위원
11:45~11:50	10'	△ 기념촬영	모든 위원
11:50	-	△ 폐 회 → 오찬장 이동	(오찬장 : 포항회대계)

구 분		단 체 명	직 위	성 명	비 고
공공 (6)	공공 기관 (3)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우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임종식	-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 장	고윤환	
	공직 유관 단체 (3)	한국수력원자력(주)	사 장	정재훈	
		한국전력기술(주)	사 장	이배수	
		한국도로공사	사 장	이강래	
민간 (14)	경제 건설 (6)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 장	조정문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 장	김경미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회 장	배인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회 장	이정철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북도건축사회	회 장	방재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구경북지회	회 장	서호형	
	학계 언론 (2)	안동대학교	총 장	권순태	
		대구경북기자협회	회 장	이주형	
	시민 사회 단체 (6)	경북YMCA협의회	회 장	김세영	
		경북YWCA협의회	회 장	이기자	
		경북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윤난숙	
		경북사회복지협의회	회 장	이종만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회 장	강보영	
		한국예총경상북도연합회	회 장	이병국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16(화)】	담당부서	미래전략기획단				
		작성 자	단 장	김 성 학			
			팀 장	이동진	주무관	권춘미	
연 락 처	054-880-4525						

경북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 청도군 ‘청년의 꿈 수제 맥주에 청맥향을 입히다’ 사업 선정 -
- 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 청년들의 창업과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

경상북도는 16일(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청도군의 ‘청년의 꿈 수제 맥주에 청맥향을 입히다’ 사업이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활력의 핵심 주체인 청·장년의 정착과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사업을 주민과 지자체가 스스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전국에서 제출된 24개 사업 중 1차로 9개 사업이 선정돼 2차 현장실사와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총 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공모사업 선정 지자체 현황 (전국 5개)

경북(청도군), 강원(정선군), 충남(홍성군), 전북(순창군), 전남(영암군)

청도군의 ‘청년의 꿈 수제맥주에 청맥향을 입히다’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으로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새로운 자립경제 선도모델 마을을 만드는 사업으로 ▲홉(HOP)농장 조성 및 재배 ▲청맥향브루어리(양조장) 건립 ▲홉 재배, 수제맥주 양조 관련 교육 ▲청맥향 판매장 및 교육·체험공간을 조성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문경시 ‘문경(聞慶)에서 청년의 행복을 캐내다’ 사업과 봉화군의

‘행복 나눔 파인토피아 봉화 조성’ 사업이 선정돼 국비 17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에도 행안부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문경시 ‘도란도란♥문경 아이도담 센터 건립’ 사업이 선정되는 등 저출산 극복 및 인구감소대응 관련 2개 부문 정부 공모사업을 모두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성학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경북의 인구감소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결혼해서 살기 좋은 주거 환경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젊은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청도군, 청년의 꿈 수제맥주에 “청맥향” 을 입히다

- 사업기간 : 2019 ~ 2020년
- 대 상 지 : 청도군 청도읍 유희리 일원
- 사 업 비 : 1,700백만원(특교세 400, 도비 120, 군비1,180)
- 사업내용 : 청맥향 브루어리(165㎡), 판매장(165㎡)
교육·체험공간(99㎡)조성
흡(HOP)재배, 수제맥주 양조 관련 교육 등

*청맥향 : ①청도만의 향이 깃든 수제맥주, ②청도 청년들에게 희망의 향을 불어넣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16(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작성 자	과 장	정 희 석		
			팀 장	조환철	주무관	제갈승
연 락 처	054-880-3317					

농촌 살리는 해법 현장에서 찾다... 영양에서 농촌살리기 정책포럼 가져
- 두 번째 포럼... 영양군 고추특화 사례로 지역성장 비결 배워 -

최근 초고령화,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경상북도가 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길은 무엇인지?... 농촌현장을 찾아 그 해법을 찾는다.

경상북도는 16일(화) 영양군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에서 「인구감소시대, 경북농업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제2차 ‘농촌살리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농촌살리기 정책포럼’은 저출생과 고령화, 탈이농 등 심각한 인구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 등 농촌이 처한 문제의 실체와 원인을 규명하고 다양한 대안제시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포럼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동필 전(前) 농식품부 장관과 오창균 대구경북 연구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이후 두 번째 열린 ‘농촌살리기 정책포럼’은 영양군을 찾아가 지역개발의 기반산업인 농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산업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농촌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영양군은 70년대 7만 명이 넘는 인구가 지금은 1만 7천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전국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특화된 고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가참여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날 열린 ‘농촌살리기 정책포럼’은 이러한 영양군의 성장비결과 성공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향후 경북농업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먼저, 이정환 전(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인력 르네상스는 오는가?’라는 포럼 기조연설에서 “기존 농업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 서비스 산업화된 농촌환경 조성과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고부가 산업화로 농업이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순석 엘케이(LK)연구소장은 경북 6차산업의 혁신방안으로 청년 주도의 6차 산업화, 기존 농업인 교육확대,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김동환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경북농산물 유통혁신전략으로 경북만의 차별화된 품종개발과 보급, 기초단위 산지조직화와 도 단위 통합마케팅 확대, 소비자 지향형 마케팅과 로컬푸드 확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농업인과 농촌개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농업의 새로운 길,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자유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동필 경북도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반산업인 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실천적 대안으로 산지조직을 통한 스마트팜과 6차산업화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농촌으로 인구유입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인구유입에 효과가 큰 청년들의 영농정착과 귀농귀촌 정책을 경북 농정의 핵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16(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국제통상과			
		작성자	과장	박노선		
			팀장	김광훈	주무관	노병희
		연락처	054-880-2732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 9일부터 15일까지 '2019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포럼' 열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단체 60여명 참가 -

경상북도는 지난 9일(화)부터 15일(월)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16(화)】	담당부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작성자	과장	김진욱		
			소방령	장해동	소방장	강지훈
연락처	054-880-6253					

경북도 상반기 화재 1,472건 발생..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

- 인명피해 35%, 재산피해 125% 증가... 공장에서 대형 재산피해 발생 -

경북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도내 화재발생 건수는 지난해 동기대비 2.9% 감소하고 인명피해는 35%, 재산피해는 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총 1,472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116명(사망 9, 부상 107), 재산피해는 389여 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화재는 44건(2.9%)이 감소했으나 인명피해는 사망자는 동일하지만 부상자가 30명(39%) 증가했으며 재산피해는 216억원(125.1%)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구미시의 다수 공장에서 대형 재산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소별로는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375건(25.5%), 공장·창고 등의 산업시설에서 309건(21%), 자동차·건설기계·농업기계 등에서 202건(13.7%), 산림·목초지 등 임야에서 154건(10.5%)이 발생했다.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676건(45.9%), 원인미상 322건(21.9%),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227건(15.4%), 과열·노후화 등의 기계적 요인이 156건(10.6%)순으로 나타났다.

김진욱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각종 소방안전 정책 추진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 쓰겠다” 고 말했다.

2019년 상반기 경상북도 화재발생 현황분석

분석기간 : 2019. 1. 1. ~ 2019. 6. 30.

구 분	건 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2019	1,472	116	9	107	38,870	15,546	23,324	
2018	1,516	86	9	77	17,269	7,332	9,937	
전년 대비	증감	△ 44	30	0	30	21,601	8,214	13,388
	%	△ 2.9	34.9	0.0	39.0	125.1	112.0	134.7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7. 16(화)】	담당부서	경북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			
		작성자	소장	류정기		
			담당	김승한	담당자	장명환
		연락처	054-632-1250			

경북 인삼재배 농가, 배움의 열정으로 선진지 현장 찾아~

- 경북인삼연구회, 현장기술연수 및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대응 교육... 인삼 경쟁력 강화 -
- 인삼특작부 강원도 진부시험지 찾아... 2021년 풍기인삼세계엑스포 성공 개최 기원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는 16일(화) 경북인삼연구회원 및 인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졌다.

이날 경북인삼연구회 회원과 인삼재배 농가 등 80여명이 참석해 인삼 특작부 강원도 진부시험지를 찾아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삼 재배 신기술 도입 및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진부시험지(강원도에 위치)는 2007년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인삼특작부 설립과 함께 설치해 12ha의 면적에 인삼, 약초 등의 품종 육성, 재배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홍섭 경북인삼연구회 회장은 “매년 급변하는 기상으로 인해 인삼 재배 여건이 불리해 지고 있다” 며 “이번 현장교육으로 다양한 신기술을 습득하고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를 숙지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류정기 풍기인삼연구소장은 “현장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연구회 회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며 “최근 확정된 ‘2021 풍기세계인삼엑스포’ 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경북 연구개발특구 추진전략 보고회’ 주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7. 17일(수) 오전 10시 도청 회의실에서 ‘경북 연구개발특구 추진전략 보고회’ 를 주재한다.

- 이철우 도지사, ‘경로당 행복도우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7. 17일(수)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에 참석한다.